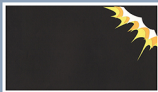


천지창조

-첫 번째 이야기-



4Page

나 레 이 션 맨 처음 세상은 아주 캄캄하고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.
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계셨어요.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은
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셨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하나님께서
말씀하셨어요.

하 나 님 빛이 있으라

나 레 이 션 그러자 눈부신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어요.
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. 하나님은 빛을 '낮'이라
하고, 어둠을 '밤'이라 하셨어요. 이렇게 첫째 날이 시작되었어요.
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어요.



5Page

하 나 님 하늘과 물이 만들어져라
나 레 이 션 그러자 곧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졌어요. 하늘과 바다는 너무나
아름다웠어요. 셋째 날,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들을 모으시고 물기를
마르게 하셨어요.



6Page

하 나 님 물이 없는 곳은 육지이고, 물이 있는 곳은 바다니라!
나 레 이 션 그리고 육지에는 풀과 꽃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어요.
아름다운 꽃이 향기롭게 피어났고, 푸르른 나무들도 보시기에 참
좋았어요. 그래서 이제는 땅 위의 세상도 아름다웠어요.
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



7Page

하 나 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라!
나 레 이 션 그러자 낮에는 해가 높이 떠올라 찬란하게 빛나고, 밤에는 달과
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였어요.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너무나
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.
다섯째 날,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



8Page

하 나 님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에는 헤엄치는 물고기들이
만들어져라!
나 레 이 션 그러자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, 강과 바다에는 예쁜
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게 되었어요.



9Page

여섯째 날,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어요.

하 나 님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져라!

나 레 이 션 그러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나타났어요. 크고 힘 센 코끼리와 작고 귀여운 토끼, 웅맹한 호랑이까지 여러 모습의 동물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.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.

나 레 이 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. 그러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생겼어요. 바로 첫 번째 사람인 ‘아담’이었어요.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.

하 나 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!

나 레 이 션 일곱째 날이 되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어요. 그리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축복하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일곱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되었어요.